

지역 소식통

김제시, 폭염 대비 야외

체육시설 운영 시간 조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2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폭염 시간대인 매일 12시부터 15시까지 야외 체육시설을 한시적으로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대상은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주요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및 김제스파랜드야구장, 청하파크골프장이다.

특히 고령층 이용이 많은 청하파크골프장의 경우 폭염기간 동안 당초 오전 7시에 개장하던 시설을 오전 5시로 개장 시간을 앞당겨 운영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063-540-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 보육여건 개선

김제, 찾아가는 돌봄교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돌봄교실’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읍면지역에 놀이 치랑으로 직접 방문해 놀이감·도서 무상 대여는 물론, 부모대상 육아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용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에는 80여명의 읍면지역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 아동 부모들의 수요를 조사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농업인들에게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에서 육아와 농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귀농귀촌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5년 치유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생 모집

김제시는 오는 30일까지 치유농업인 역량강화 기본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치유농업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8월 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우수농장 사례 소개, 서비스 운영 및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환경 조성에 필요한 농지법·제도 이해 및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교육 안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치유농업시설을 운영(준비) 중이거나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시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63-540-4514, 4515)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1126key@korea.kr)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원들 “행정통합, 주권침해”

신상발언 통해 완주전주 통합 전면 비판… 절차·논리 모두 부당성 지적

완주군의회가 지난 25일 지난 14일 개최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김재천·이경애·유이수·성종기·심부건·최광호·서남용 의원 등의 5분 자유발언과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친환경 상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이 처리되었으며, 각 실과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경애·김규성·이순덕·유이수·성종기·이주갑 의원은 각각 신상발언에 나서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했다.

이경애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완주군민 의사를 무시한 통합 시도는 일제 강점기 침략과 같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규성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완주군 농업·농촌의 기반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통합 찬성 단체가 제시한 10개 상생발전방안이 실질적 지원 없는 형식적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완주 교육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교육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통합 추진 시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이수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짓밟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완주가 일진 왜란과 동학농민운동 등 위기마다 스스로를 지켜온 역사를 언급하며, “통합은 전주시의 기반적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성종기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완주의 정체성 파괴와 자치 퇴보”라며,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약속된 지원책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 실망만 남긴 점을 예로 들며, “실행 계획과 강제성 없는 통합 논의는 정치의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주갑 의원은 전주시와의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 없이 정치적 야욕에 따라 추진되며 강력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고, 재정 부담만 떠안길 것”이라 비판하며 통합 논의 즉각 중단과 완주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유의식 의원은 폐회사를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낭독했다.

서한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도하는 완주·전주 통합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생존과 균형’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합 이후 완주군이라는 행정단위가 소멸되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 정부의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간격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국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통합이 아닌 각 지역의 정체성과 자립 기반을 살리는 상생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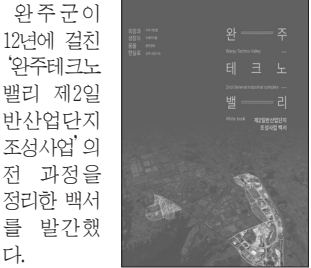
유 의장은 또, “완주는 로컬푸드와 농생명·수소 산업 거점으로, 전주는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는 통합 없이도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한의 말미에서 유 의장은 “효율성과 규모만을 앞세우는 통합 논리는 과거의 성장 중심적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께서 ‘효율’의 논리에 가려진 ‘소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통합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여는데 쓰이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 제2산단 백서 발간

완주테크노밸리 12년 개발 성과·산업 비전 담아



완주군이 12년에 걸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 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 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최근 2025년 3월 최종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12년간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은 완주군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2025년 7월

기준 분양률 97.6%, 총 34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했다.

이 중 16개 기업은 이미 공장 가동을 시작해 약 1,720명의 고용 창출과 1조1,6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완주군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는지, 향후 산업 비전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정책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백서에는 제2산단의 조성 배경과 사업 추진 과정, 성과 및 시사점이 종합 수록됐으며, 완주군의 산업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도 함께 담았다. 책자는 완주군 실과소와 읍·면사무소, 인근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총 18건 안건 최종 의결 등

김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만에 결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24일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쳤다.

이날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상현·오승경·김주택·김영자·김승일·문순자·전수관 의원으로 총 7명이며 선임된 위원들은 선임 의결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김제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진행된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에서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졌으며, 의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제시 논공 재배치 용·배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주상현 의원), △김제 역사와 자부심 ‘만경읍성’ 복원을 위한 제언(이병철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흡연구역 정비 제언(문순자 의원)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김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서백현 의장은 집행부에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향후 주요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회전교차로 읍면동까지 확대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내달 준공 예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읍면동까지 회전교차로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25일 시내구간에 분포돼 있는 회전교차로를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 하기 위해 추진한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오는 8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성덕면 모라리에 지난 2024년 12월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차량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계획 됐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회전교차로를 읍·면·동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교차로의 기하구조가 복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



를 실시해, 차량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에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통행 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5 김제시 명장’ 후보자 신청접수

시, 내달 22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김제시 명장’ 후보자를 다음달 2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김제시 명장’은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선정해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식품가공 및 공예, 미용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1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시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기술의 발

견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명장 선정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자들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김제시 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명장에게는 김제시 명장 증서와 명패, 기술장려금(3백만원)을 수여한다.

2025년 김제시 명장 신청은 읍면동장 및 각 업종별 협회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시청 경제진흥과(☎063-540-3442)에 방문·우편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